

1995년도 일본의 페타이어 재활용현황

李宗烈* 譯

일본자동차타이어협회(JATMA)가 1996년 3월 25일 발표한 “1995년도 페타이어 재활용현황”에 따르면 1995년도 페타이어 총발생량은 1994년도에 비해 9% 증가하였으며, 페타이어 재활용률은 1994년도와 같은 93%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. 페타이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용은 전년도에 비해 11%나 증가하였으며, 그밖에 재생고무용 및 고무분말용이 2% 이상 증가하였다. 또한 아직 그 양은 적지만 타이어회사의 공장용도 1.5배나 증가하였다.

일본자동차타이어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1995년도 페타이어 총발생량은 교체용 타이어의 판매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1994년도 대비 9.4%가 증가한 94만 3천톤에 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, 수량으로는 1994년도 대비 8%가 증가한 9천 9백만개에 달하였다. 페타이어의 경로별 발생량을 보면 타이어 교체시 발생량이 75만 1천톤이고, 폐차시 발생량은 19만 2천톤으로 그 구성비는 8 : 2이다. 이에 대하여 1995년도 페타이어 재활용률은 전체 발생량의 93%인 87만 3천톤이고, 재고, 소각, 매립 등 용도가 불명확한 것이 7%로서 1994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. 이용방법별로는 원형 또는 가공이용(이른바 material recycle)분이 37만 7천톤으로서 전체 발생량의 40%를 차지하였고, 시멘트 소성용 등 열이용분이 49만 6천톤으로서 전체 발

생량의 53%를 차지함으로써 열이용분이 가공이용분을 앞서고 있다.

원형 또는 가공이용분중에서는 수출용이 가장 많지만 전년대비 4%의 증가에 그쳤으며, 재생타이어 원단용 또한 2%의 저조한 증가를 보였으나 재생고무용 및 고무분말용은 1994년도 대비 22%가 늘어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. 한편 열이용은 타이어업체가 설비의 일부를 무상대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멘트 소성용 등이 27만 5천톤으로 1994년도에 비해 11%가 증가하여 전체 발생량의 29%를 점유하고 있으며, 또한 타이어 제조업체의 공장용도 3만 2천톤으로 1994년도에 비해 52%나 증가하였다. 그러나 금속 제련·제지용은 1994년도에 비해 3%가 감소하여 유일하게 1994년도보다 하락하였다.

타이어 재활용현황
(단위 : 1,000톤, %)

		1995			
		중 량	구성비	전년대비	
타 이 어 재 활 용	원형 또는 가공이용분	수출용 (재생타이어 원단용)	147	16	104
		재생고무용·고무분말용	117	12	122
		재생타이어 원단용	84	9	102
		기 타	29	3	112
		소 계 (A)	377	40	109
열 이 용 분		시멘트 소성용 등	275	29	111
		중·소형 보일러용	126	13	107
		금속 제련·제지용	63	7	97
		타이어회사 공장용	32	4	152
		소 계 (B)	496	53	110
계 (A+B) %는 재활용률		873	93	109	
용도 불명분		70	7	109	
합 계 (총 발생량)		943	100	109	

자료 : 日本 週刊タイヤ新報, 1996.4.1

* 大韓타이어工業協會 環境對策課 代理